

일제시대 충북기독교의 의료선교 활동 -청주 소민병원(蘇民病院)을 중심으로-

Medical Work of Cheongju (淸州) Duncan Memorial Hospital(蘇民病院) under the Japanese Rule
全淳東(忠北大學校 歷史教育科 教授) Jeon, Soon-dong

1. 서언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행한 3대 주된 활동은 복음화(Evangelization), 문명화(Civilization), 근대화(Modernization)이었다. 대개 미개하고 뒤떨어진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복음화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복음선교와 더불어 문명화와 근대화의 작업이 뒤따르기 일 수였다. 특히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명화 내지는 근대화의 작업인 의료와 교육선교가 적격이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선교 초기 의료선교가 일찍이 이루어졌다. 1884년 6월 한국에 도착한 미감리회 일본 주재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cLay, 1824-1907)는 김옥균의 알선으로 고종을 알현하고 한국에서의 의료와 교육사업 실시에 관한 윤허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해 9월,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은 신분을 감추고 미국공사관 소속 공의(公醫)라는 직함을 가지고 중국 상해에서 들어와 활동하였는데, 그의 의료활동과 궁중과의 교분은 한국개신교의 선교 문호 개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뒤에 헤른(John W. Heron) 그리고 북감리교의 스크랜튼(William Benton Scranton) 등이 입국하여 의료선교사로 활약하였다. 1885년부터 북장로교는 왕립병원인 광혜원(뒷날 제중원)을 중심으로, 북감리교는 민간병원인 시(施)병원을 중심으로 각각 의료선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광혜원은 그 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여 한국기독교 의료선교의 센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 선교활동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확산되었다. 한국에 들어 온 각 교단 선교부가 지방에서 복음 선교를 적극화하고 의료선교를 병행함으로써 대구의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교병원, 부산의 일신병원, 평양 기독교병원, 기흥병원, 함흥의 재해병원, 해주 구세병원, 원주 서미강 병원(원조 기독교병원의 전신), 용정의 제창병원 등 여러 병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한국 기독교 선교가 교육과 의료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충북지역에도 교육과 의료사업이 기독교 전파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청남학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학교가 개화와 근대화와 민족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부에서 세운 소민병원이 일찍이 의료선교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충북 기독교의 교육선교의 측면은 청남학교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 실상이 일부 밝혀져 있으나¹⁾ 의료선교의 중추기관인 소민병원에 대해서는 의외로 연구가

1) 교육에 관한 연구로서는 안재명, 「충북지방 선교활동사에 관한 고찰-여성교육을 중심으로-」 『논문집』 3호(일신여고) 1985;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역 기독교와 교육활동」 『인문학』 18(충북대), 1999;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 -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2·3합집(충북대), 1999 등이 있다.

소홀한 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개 양관을 소개하거나 청주 선교부를 소개할 때 부차적으로 소민병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소민병원의 구체적인 실상 및 의료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²⁾ 물론 자료의 한계성도 있겠으나 대구동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원주기독병원처럼 해방 후 성장하지 못하고 폐쇄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병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의외로 홀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해방 후 다시 부활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민병원을 통한 의료선교의 실상을 고찰함은 기독교가 20세기 전반에 충북의 사회 문화 영역에 어떻게 外延되어 나갔는가를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시대 1907년부터 1941년까지 행해진 충북기독교의 의료선교의 상황을 소민병원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의료선교가 교회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관련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친 영향 및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부의 성립과 의료선교의 시작

1) 선교부의 성립

초기 한국기독교가 개항장이나 서울, 평양, 대구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교지부(mission station) 설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인 선교부 설치가 지방도시로 확장되어 갔다. 1900년부터는 내륙지역인 공주, 청주, 충주, 원주, 안동 등에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자주 내왕하기 시작하였고, 각 지방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공동체가 이미 형성되기도 하여 기독교 복음은 확산되어 갔다.

충북지역의 기독교 시작은 구한말 1900년 전후로 잡고 있는데, 초창기 외국 선교사로서 청주 지역 선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민노아 선교사이다. 민노아(閔老雅; 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 선교사는 1892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1893년 민노아 학당³⁾ 3대 교장을 지낸바 있었는데, 그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00년에는 김홍경과 함께 청주시장에 와서 전도한 적이 있다.⁴⁾

미 북장로회 소속의 민노아 선교사가 1900년에 이르러 청주를 방문한 것은 선교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늦은 편이다. 그렇게 된 것은 침례교 선교 활동과 밀접한 관

2) 청주 “洋館” 및 “청주선교부”에 대해서는 안재명, 「충북지방의 선교 활동사에 관한 고찰」 『논문집』 제 2호(일신여교) 1984.; 이덕주, 「한국 기독교 문화유적을 찾아서」 『기독교 사상』 1997년 11월호; 元世龍, 「淸州洋館 1號 研究」(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역 기독교와 교육활동」 『인문학지』 18(충북대), 1999.; 전순동·최동준 「청주선교부의 설치와 양관」 『청주YMCA50년사』 1999.; 안재명, 「충청지역에 복음이 들어 온 이야기」 1999. pp.24~40.; 도선봉·한규영, 「미국북장로회 청주선교부 건축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초적 연구」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19-2, 2000.; 충청노회사 편찬위원회, 『충청노회사』 2000. 등이 있다. 특히 元世龍, 「淸州洋館 1號 研究」 도선봉·한규영, 「미국북장로회 청주선교부 건축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초적 연구」는 양관 건물의 건축과정 및 구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민노아 학당은 처음엔 예수교 학당이라 하였으며, 후에 서울 경신학교가 되었다.

4)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 305.

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민노아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침례교와 장로교간의 협정에 따라 충청도는 침례교로 배정되었다. 우리는 침례교가 그들의 선교활동을 포기할 때까지는 그곳에 들어 갈 수 없었다. 그것이 다른 장로교지역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한 지 십 년이나 지나도록 우리의 진입을 지연시키었다. 이 기간이야말로 한국교회들로 하여금 밀물처럼 훌륭한 출발을 하게 된 중요한 십 년이었던 것이다.⁵⁾

이것을 보면 충청도 지역은 그동안 침례교 선교지역이었기 때문에 장로교단이 선교의 손을 펼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실은 1893년 미점거지역인 충청도와 전라도의 두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 남장로교가 맡아 선교하도록 선교부에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에 대한 인원보충이 잘 되지 않아서 차차 침례교회에 넘겨주게 되었고 침례교 선교사들은 1895년 한국에 도착하여 충청도의 公州를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에 선교활동을 떠나갔다.

침례교 선교회도 재원부족으로 1900년에 선교활동을 중단하였다. 침례교 선교사들이 철수하자 장로교와 감리교는 양자간에 지역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⁶⁾ 공주에 근거를 두고 있던 감리교가 청주 지역도 순회지역으로 삼으면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었는데, 장로교도 청주를 주요 선교거점지역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북장로회 서울 선교부는 1900년부터 청주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갖고, 경기 남부지방을 맡고 있던 민노아 선교사가 김홍경 조사와 함께 청주 시장 전도를 행한 것이다.

민노아 선교사는 1904년 청주에 도착하여 김홍경 조사와 함께 그가 전도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주읍교회를 세워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05년 6월, 그는 부인과 세 자녀를 데리고 청주로 이사왔다. 그는 교회 청년들이 경영하고 있던 광남학교(청남학교)를 인수하고 후에 청신여학교를 세웠으며 주변의 여러 교회에도 학교를 세우는 등 청주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신교육을 보급하였다.⁷⁾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각 지역에 선교부를 두어 조직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5)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1894-1934), 1934. p. 304.

6) 위의 책, pp.303~304.

7) 민노아 선교사는 당시 청주를 중심으로 東·西·南·北 곧 괴산 청천교회에 淸東學校(교장 李鍾昊), 청주 신대리의 신대교회에 淸西學校(교장 吳天甫), 청주읍교회에 청남학교, 목방리의 목방교회에 淸北學校(교장 安慶淵) 등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설립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 학교는 각 지역 농촌을 계몽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앞장섰다. 그 외에 또 기독교 학교로서 여성교육을 담당한 청신여학교, 괴산 교회에는 광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역 기독교와 교육활동」 『인문학지』 18(충북대), 1999, pp. 28~29 참조.

충북지역에는 1905년 청주선교부가 발족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주선교부 조직에 대한 계획은 이미 1902년부터 시작되었다.⁸⁾ 장로회 선교 본부에서는 서울과 대구와 전주 사이의 어느 지역에 새로운 선교지부를 세우려 구상할 때, 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가 새로운 선교지부로 부상되었는데, 이 때에 청주가 채택되었다. 청주가 선교지부 설치의 적합한 장소로 채택된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① 충남의 공주는 일찍이 감리교가 들어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면서 철도 이용이 가능한 교통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② 청주는 이미 신대교회와 청주읍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또한 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선교부 설치의 적합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을 것이며, ③ 민노아 선교사가 이미 청주에 와서 전도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친숙감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⁹⁾

이미 1904년부터 김홍경으로 하여금 금천동 동산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고,¹⁰⁾ 또한 1904년 이미 청주읍교회를 세워 선교부 설치의 기틀을 마련한 민노아 선교사는 1905년 독립선교부 설치의 허가를 얻어 청주선교부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선교부가 설립되었다고 하나 인적 자원면에서 민노아 선교사 식구 밖에 없고 활동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 독립적 선교부(Mission Station)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민노아 선교사는 매입한 땅에 사택과 선교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1905년 여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후 1932년까지 선교사 사택, 선교본부, 병원, 성경학교 등이 건축되어 지역선교와 의료 봉사의 본거지로 이용되었는데 그 일부가 오늘날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있으며, 그것이 유명한 청주 “양관(洋館)”으로, 청주일신여자 중·고등학교 안에 4채, 학교 밖에 2 채가 위치하고 있다.¹¹⁾

청주 선교부는 계속하여 인원보강이 이루어졌다. 선교부의 일을 위해 1907년 8월 계군(Edwin Kagin:桂君) 목사가 부임하여 복음전도사역을 담당하였고, 그 이듬해 곧 1908년 8월 국유치(W.T. Cook : 鞠裕致) 목사 부부와 도리스(Anna S. Doriss) 여 선교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그 해 8월 퍼비언스(W.C. Purviance 斐班瑞) 의사 부부가 청주 의료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이에 청주 선교부의 외국인 식구가 크게 늘었다. 민노아 선교사 내외, 국유치 선교사 내외, 퍼비언스 의사 내외 계군, 도리스 양 등 성인 8명, 그리고 어린이 3명이 선교부에 거주하게 되었다.

마침내 1908년 8월 1일 청주선교부가 서울 선교부에서 완전 분리하여 독립 선교부가 되었고 건물과 비품에 필요한 기금도 마련되어 선교부의 활동은 희망적이었다. 이 때부

8)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1934)p. 304.

9) 전순동·최동준, 전계 논문 「일제기 청주지역 기독교와 교육활동」 pp. 14~15.

10) 선교사들이 청주에 도착하여 1904년부터 탑동 언덕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1930년경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사들인 땅이 약 5만여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11) 탑동에 남아 있는 양관은 모두 여섯 채인데, 1945년 6월 KBS 청주방송국이 이 일신여중·고 내에 있는 양관에서 개국하였고 6.25 사변 때에는 이 양관이 한때 인민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3년 3월 3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133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터 청주선교부는 면모를 갖추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 의료 선교의 시작

미북장로회 선교부에서는 청주지역에 선교부를 계획할 때부터 의료선교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1903년 청주 선교부 조직에 대한 8개항의 보고문 가운데, 경기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민노아 목사에게 새로운 청주선교지부 개설 책임을 맡긴다는 것과 널(Null, M.M.) 의사 부부를 청주에 임명할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¹²⁾ 처음부터 의료선교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널 의사는 대구지역으로 가게 되었다.¹³⁾ 그것은 대구지역 의료 선교사로 있던 존슨(Woodbridge O. Johnson, 張仁車)¹⁴⁾ 선교사가 건강 때문에 장기 휴가를 얻어 그 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그 후임으로 널 선교사를 대구선교부에 배치한 것이다. 대신 존슨선교사가 공기 맑은 청주지역에 휴양차 머물면서 대구에서 의약품을 가져와 청주지역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였다.

1906년 존슨선교사가 다시 복귀하게 되자 마침내 1907년 널(Null)의사 부부가 정식으로 의료선교교사로 청주지부에 임명되어 이 지역 본격적인 의료활동이 개시되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 간단한 진료소를 개설하여 환자에게 투약하면서 진료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청주 도착 3개월만에 건강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국 땅에서 몸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선교활동에 임한 결과 건강이 나빠져 1907년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고 말았다. 널 선교사가 청주 선교부에 있는 기간은 비록 3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있는 동안 선교부 구내에 진료실을 개설하여 충북 의료선교활동의 기반을 닦아 놓은 점은 그의 큰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장로교 선교부 조처에 따라 널(Null) 의사 부부는 존슨 의사 부부가 대구로 돌아가자 청주에서 의료사업을 열도록 명을 받았다. 그러나 널 의사는 청주선교

12) Harry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1934) 『충북노회사료집』, pp. 46-47. 이 보고내용 8개항 가운데 “철도 노선에 있는 조치원 시장에 서점과 휴식(숙박)을 위한 집을 세운다. 청주지부창설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1500달러가 소요된다. 선교본부가 개인이나 교회로부터의 특별출연을 통하여 선교지부의 지원을 확보한다. 새로운 목사 선교사를 선교본부에 요청한다”는 내용도 보이고 있다.

13) 널 의사는 1903년 9월 27일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서울 대구 청주 등지를 중심으로 의료활동을 행하다가 1907년 10월 7일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였다.

14) 1897년 12월 23일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경북 대구에 파송되어 의료활동을 전개하면서 대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창기 선교사이다. 그는 대구제일교회 구내 초가집에 작은 시약소를 개설하고 제중원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대구 동산기독병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존슨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본국에 들어갔다가 개량사과 묘목을 가져와 자신의 선교관 저택에 심었는데, 이것이 대구지방 사과 재배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1913년 선교사직 사임하고 귀국하여 로스엔젤러스에서 목회하다가 1949년 캘리포니아 벤누이스에서 생을 마쳤다. 『대구동산기독병원 전도회 연혁사』 1977, 『대구제일교회 90년사』 1983, . 참조.

부에 3개월 밖에 있지 못하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들은 3년 반 동안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1907년 5월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청주에 있는 동안 그는 선교부 구내에 조그만 건물에 진료실을 개설하였다.¹⁵⁾

라 하여 진료실을 개설하여 시약소와 무료 진료실을 겸하였는데 이것은 1909년에 세워진 시중의원 청주자혜의원¹⁶⁾보다 2년이나 앞서 개설된 것으로 충북 의료활동의 효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청주선교부를 개설한 민노아(閔老雅; F.S.Miller) 목사가 서울이나 평양에서와 같이 청주에도 의료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찍이 의료선교사업을 시도하고 널 의사와 함께 선교부 구내에 진료실을 개설하였던 것이다.

3) 초기 의료 선교의 면모

널 의사 후임으로 1908년 2월에 퍼비언스(Purviance, Walter C. 斐班瑞) 의사 부부가 내정되어 한국에 왔다.¹⁷⁾ 그렇지만 그는 선천에서 급히 오라는 전갈을 받고 그곳 미동병원에서 6개월을 보낸 후 8월에야 청주에 도착하였다.¹⁸⁾

새로이 도착한 퍼비언스는 먼저 의료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설비를 갖추는 일에 먼저 손을 대었다.

널 의사가 귀국하여 선교부 의사가 잠시 공석 중에 있을 때 민노아 목사 부인인 수산도티 여사가 대신 진료소를 운영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도티 여사의 의료활동을 ‘안약과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을 가난한 민중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요새를 지키는 사람’¹⁹⁾이라 묘사하여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사실상 도티 여사의 의료활동이란 배아프면 소화제 갖다주고 눈병이 났을 때 안약을 넣어 주며 간단한 상처를

15) Harry A. Rhodes, *History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1884~1934)*, p. 314.

16) 청주지역 의료의 역사를 보면 1909년 세워진 청주 자혜의원이 최초의 의료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청주근세60년사화』(1985) p.4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사업은 오래 전부터 한방(漢方)에 의존해 오다가 융희3년(隆熙 3년, 1909) 한국정부의 칙령 제75호로 영세민과 일반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북부지방인 함흥(咸興), 중부지방인 청주(淸州), 호남지방인 전주(全州)에 자혜의원(慈惠醫院)을 개설하게 되어 청주에서는 서문동 구 도립병원(지금의 청주보건소) 자리에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라고 하여 1909년에 청주에 시중의원으로 자혜의원이 설립되었음이 서술되어 있다.

17) 퍼비언스는 1908년 2월 29일 북장로교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선천 미동병원에서 6개월간 의료선교를 한 후 청주선교부에 부임하여 의료활동을 전개하다가 1913년 11월 귀국하였다.

18) 퍼비언스가 부임한 1908년은 쿡(Cook 鞠裕致) 목사, 도리스(Doriss, Anna S. 都信女) 여선교사 등도 청주선교부에 부임하여 청주선교부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19) 선교부에 의사가 없는 동안 밀러 부인이 대신 의료활동을 하였다.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315

치료해주는 데 불과하였고 의료시설 또한 열악성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퍼비언스는 먼저 시설을 갖춘 단독 진료소를 개설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민노아 목사와 상의하니 마침 수리하면 진료소로 쓸 수 있는 집 한 채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민 목사 생활을 도와주던 사람이 살던 문간채였다. 문간채에 살던 사람도 흔쾌히 협조하여 그 집을 고쳐 진료소로 사용하였다.

시작은 미약하여도 장래 큰 사업이 된다면 청주에서의 의료사업은 분명 전망이 매우 밝다. 진료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 민노아 씨의 문간 집이었다, 그 집에 사람이 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 진료소를 세울 계획이니 집을 비워달라 하자 거기에 살던 사람이 곧 바로 집을 옮기고 비워주어서 새로운 진료소로 쓸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²⁰⁾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진료소가 개설 된 후 의료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퍼비언스 의사는 민노아 목사 시중드는 하인이 살던 집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집을 수선한 후 그곳에 진료소를 열었다. 첫해에 그와 두 사람의 조수들은 500명의 환자를 받아 2300회의 진료를 베풀었다.²¹⁾

라고 한 것을 보면, ‘첫 해’라 하지만 사실은 그가 청주에 8월에 도착하였으니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셈이며, 그 사이에 500명의 환자를 받아 2300회의 진료를 베풀었다 하니 의료활동은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여겨진다.

퍼비언스는 민노아를 도와 주던 사람이 살던 집을 수리하여 진료소를 개원하였다. 그 당시의 상황이 “The Korea Mission Field”에 비교적 소상히 소개되어 있다.

필요한 군대를 수리한 후 큰 방 하나를 커튼으로 나누어 두 칸으로 나누어 한 칸은 약방으로, 다른 한 칸은 환자를 진찰하는 방으로 사용하였다. 두 방은 모두 자그마한 하고 아늑하였다. 몇 개의 한국산 돛자리를 깔고, 빌려온 의자를 배치하고, 검사대를 설치하고, 선반을 설치한 후 약상자를 차근차근 정리하였다. 진료소는 매일 오후에 문을 열었으며 환자를 진찰하여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피자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손짓 몸짓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²²⁾

라고 하여 진료소에 간단한 비품을 들여놓고 매일 오후 진료를 받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퍼비언스는 진료소에서 김씨 성과 이씨 성을 가진 조수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의료 활동을 전개하였다.²³⁾

20) *The Korwa Mission Field* vol. V, p. 134.

21)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 315

22) *The Korwa Mission Field* vol. V, p. 134.

당시 의료사업은 전도사업과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환자에 대한 처방과 진료가 끝나고 나면, 퍼비언스에게 글을 가르쳐 주던 박씨 성을 가진 선생이 전도책자를 주면서 전도하였다.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였으며 그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환자가 만일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영적 생활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었다.²⁴⁾ 의료행위는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적 치유를 병행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불신자가 진료소에 왔다가 병이 나은 후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예가 많았다. 당시 의료선교사인 퍼비언스는 의료활동을 통해 전도가 확대되고 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떤 한 아버지가 화상을 크게 입은 아이를 데려 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교도라서 자기 아이를 외국인 기독교도인에게 치료받게 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회복되자 그 가족은 청주로 이사와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도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료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²⁵⁾

라고 하고 있는데, 외국선교사라는 편견으로 자기 자식의 병 진찰을 거부하였던 한 어머니가 치료를 받은 후 아이가 낫게 되자 그런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활동은 한국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신뢰심을 얻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더욱 의료기관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전도기관이 되고 있었다.

주목할 일은 의료선교가 단순히 선교부의 진료소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골 농촌으로 나가 순회하면서 건강이 약한 사람을 찾아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전도하였다는 것이다.

그 해(1908)에 우리는 진료소에서 2000건 이상 진료를 했고 많은 환자들이 65마일 내지 70마일 거리에서 찾아 왔다. 올해 계군(Kagin)목사와 여행 중, 우리는 동부의 지역을 순방하였는데, 우리 진료소 환자였던 남녀들을 우리가 방문한 모든 마을에서 만날 수 있었다. 침대가 없어서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없지만 중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에는 수술하고 나서 몇 시간 후 마을의 한 집으로 옮기고 매일 치료받으러 진료소에 오게 하였다.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수술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²⁶⁾

라는 것을 보면, 의료선교사 퍼비언스는 선교 목사와 함께 지방을 순회하면서 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였던 것이다.

23) 상동.

24) 상동.

25) *The Korwa Mission Field* vol. V, p. 135.

26) 상동.

이러한 의료행위는 일본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우리 목사 중 한 분이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일본인을 만났다. 일본인은 목사에게 혹시 의사냐고 물었다. 목사가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신 그를 의사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다 죽게 된 일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났다. 수술을 하였다. 그 여인은 회복이 빨랐다. 그 이후로 일본인 환자도 치료하게 되었다.²⁷⁾

고 하여 일본인도 이 병원을 찾아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널 의사 시대에 의료활동이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활동을 1908년 퍼비언스가 청주에 도착한 이후이며 퍼비언스는 이 때 진료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물론 농촌을 순회하면서 의료활동을 전개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3. 소민병원의 건립

진료소에 환자들이 몰려들고 약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청주선교부는 좁은 진료소만으로는 밀려오는 환자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특히 당시 유행하던 장티푸스, 천연두 등의 환자나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가 더욱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청주선교부 민노아 목사는 인근에 병원이 없던 청주 지역에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세워 농촌을 계몽하고 선교함이 시급함을 본국에 편지를 보내어 호소하였다. 청주 선교부의 이와 같은 절박성을 전해듣고, 미국 뉴욕에 사는 던컨(Jhon P. Duncan) 부인²⁸⁾이 1908년 병원 건축을 위해 선뜻 5천 달러 현금을 약속하여 왔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청주선교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1910년 4월부터 병원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료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여 새 병원을 사용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뉴욕의 던컨 부인이 5,000달러를 현금하여 이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봄비는 숙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멋지고 넓은 병원을 갖게 될 희망에 부풀어 있다.²⁹⁾

27) 상동.

28) 청주에 병원 신축자금을 지원한 던컨여사는 민노아 목사 아버지의 한 친구 부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민노아 목사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한 아버지의 한 친구의 부인이 민노아 목사로부터 한국에서의 병원 설립의 요청을 듣고 친구 부인이 후원금을 보내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재명, 「소민병원과 그 영향」 (『충북기독교역사연구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문, 2001. 3. 29)

29) *The Korwa Mission Field* vol. V, p. 135.

라고 당시 청주에 있던 의료 선교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사가 『미국장로교 한국선교사』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1908년 새 병원 건립을 위하여 존 던컨 부인이 5천달러의 기부금을 보내겠다고 알려 왔다. 1910년 4월에 기초는 놓여졌지만 병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1912년 7월 29일까지는 환자를 받을 수가 없었다. 던컨 부인은 비품, 우물, 급수 설비, 수위실 마련 등을 위해서 관대하게도 2000달러를 더 추가하여 지원하여주었다. 새 건물의 진료부는 1911년 1월에 입주하였다. 그리고 민노아 목사 부부 앞으로 된 두 채의 한옥이 입원환자를 위한 병동으로 사용되었다. 그 해 7개월 동안에 총 진료회수는 총 2500회였다. 의료사업을 위해 참여한 한국인 직원은 전도자 한사람, 전도부인 한사람, 세브란스병원 간호원 양성소 출신의 간호원 한사람을 포함하여 7명이었다.³⁰⁾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 병원은 전적으로 뉴욕에 살던 던컨 부인의 기부금이 큰 몫을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4월에 시작한 건축공사는 1912년 7월에 준공되었다. 자금 부족으로 전체공사가 완성되기 전이었지만 진료실로 사용할 공간이 확보되자 1911년 1월에 우선 입주하여 약국을 열고 활용하였다. 그 때에 던컨 부인이 내부 의료시설, 우물, 급수 시설, 그리고 수위실 등 부대 시설을 위해 2천 달러를 추가로 보내주어 시설 설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1912년에 가서 완전한 병원으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조선식 기와 지붕에, 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붉은 벽돌집을 완성하여, 진료실과 수술실 등 면모를 갖춘 근대적 병원이 탄생한 것이다.³¹⁾

이것이 선교사들 사이에는 “던컨 기념병원(Duncan Memorial Hospital)”으로, 청주 사람들에게는 “蘇民醫院”으로 알려진 청주 최초의 서양 병원이다.³²⁾ 청주일신학원 내에 있는 양관 중 제일 서편의 건물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13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학교의 양호실, 상담실, 선교실,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창기의 기독교 건물이 그러했듯이 이 건물도 한·양절충식으로 되어 있다.³³⁾ 지붕은 맞배형의 구조에 한식 기와를 얹었다. 기초부는 화강암 쌓기를 한 위에 전체적으로 적갈색 벽돌의 조적조이다. 창문은 장방형 오르내리창에 회색 벽돌로 결원형 아치 쌓기

30)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 315.

31)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때에 1905년에 밀러가 지은 한옥 기와집 두 채가 입원병동으로 사용되었다.

32) ‘백성을 살리는 집’이란 뜻에서 이 병원을 ‘蘇民醫院(소민의원)’이라 명명한 것 같다.

33) 양관의 건축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元世龍, 「淸州洋館 1號 研究」(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도선봉·한규영, 「미국북장로회 청주선교부 건축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초적 연구」(『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19-2, 2000)가 있어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의 인방을 하고 있으며 바닥은 80mm의 폭의 쪽마루를 깔았다. 이 병원건물은 한·양 절충식 건물로, 대중들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건축에 있어서 그 지역의 건축양식을 수용하던 선교 초기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외관상의 느낌으로 볼 때, 선교사 주거용 주택이나 교회 건축에서 느끼는 아담한 맛과 조형미는 다른 양관에 비해 뒤진 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병원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병원 건물은 남향을 주향으로 하여 동서로 길게 배치한 장방형 건물이다. 이 점은 다른 양관의 건물이 주로 서향을 주향으로 하여 남북배치를 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이것은 병원 건물임으로 남쪽 채광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기와로 덮어 볼 수 없으나 본래 지붕에는 자연채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붕 창까지 내었다고 하니,³⁴⁾ 이 건물이 다른 양관처럼 주택용 건물이 아니고 병원건물이었기에 채광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

건물은 주 현관을 동쪽과 북쪽, 두 군데에 설치하여 병원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³⁵⁾ 동쪽의 것은 환자들이 드나드는 현관으로, 북쪽의 것은 의사와 직원들이 사용하는 현관으로 이용되었던 것 같다.

현재는 건물 내부를 개조하여 교실, 양호실 및 여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처음에는 약국, 진찰실, 응급실, 수술실 등으로 사용하던 여러 방들이 있었다. 동쪽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투약구가 있었으며 1층에 응급실 수술실 및 진찰실을 마련하고 2층에 회복실 및 여러 사무실을 두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잦은 개축으로 철거되어 잘 알 수 없으나 화장실은 베란다 각층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건립 당시부터 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세식으로 하였던 것이다. 난방은 지하에 보일러실을 두고 스팀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지하에 공기난로를 설치하여 함석을 둘러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장치가 설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굴뚝을 두 곳에 설치하였다.

특히 이 건물은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어떤 구조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번도 배수시설을 수리한 적이 없는데, 장마철이 되어도 지하가 결코 습하지 않으며 비가 많이 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이 잘 빠지고 있어 신기한 일이라고 일신여교 행정실장은 설명하고 있다.³⁶⁾

34) 오랫동안 일신학원 교사로 봉직하다가 일신여중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안재명 장로는 天惠(George C. Worth) 선교사의 증언에 따라 지붕에 자연채광을 이용한 창구가 있었으나 지금은 기와로 막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5) 현재 남아 있는 다른 5개의 양관의 주 현관은 대개 1개로 되어 있다. 선교사 주택이나 성경학교 건물로 건축되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며 소민병원은 병원용으로 세워졌기에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개의 현관을 둔 것 같다.

36) 김영동 행정실장의 증언(2001. 10. 6)

소민병원의 건축상의 개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건축 양식	한·양절충형
면적	530m ² ,
좌향	남향
주동 배치	동서 배치
구조	조적조
규모	반지하 1층, 지상 1·2층
지붕	기와
지붕형태	맞배지붕
창문	오르내리창
주현관	포치 현관
현관 위치	동·북 2개
바닥	목재 쪽마루널, 평면형대 장방형
난방	공기난로, 스팀, 난로
위생설비	수세식 화장실

4. 의료 사업의 전개

소민병원이 개원됨에 따라 의료 활동의 식구도 늘어났다. 선교사 외에 전도사, 전도부인, 간호원 등 다수의 한국인이 의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 간호원가운 가운데 훈련받은 간호원도 있으나 훈련받지 않은 여성도 간호원으로 일을 도와 주었다. 1912년 12월에는 청주선교부 최초의 외국인 간호원 호우(A. G. Howe)양이 청주선교부에 배치되어 병원 일을 돌보게 되었다.³⁷⁾

병원은 일요일 외에는 매일 환자들에게 열려 있었다. 병원이 세어졌음이 소문이 나자 청주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이 병원을 찾아 왔다. 많은 환자들이 소민병원을 찾았으며 의료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소민병원의 진료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 수 없으나, 미국장로선교부 연례보고에 나타난 의료 활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⁸⁾

1912년 보고 : 초진환자 380명, 재진환자 1790명, 수술 27회, 왕진 48회,
 1914년 보고 : 초진 1,940명, 재진 3704, 입원환자 86, 수술 16, 왕진 29,
 기타방문 : 2,000

선교사들은 소민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선교의 좋은 대상으로 삼았다. “누구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전도용 소책자나 복음서를 받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³⁹⁾고 한 것으로 보아 선교부에서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놓치

37)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 315.

38) 『충북노회사료집』, pp. 74~77.

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병원에 왔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자가 늘어났다. 병원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게 되었기에 퍼비언스 의사는 “병원에서의 전도사업은 매우 고무적이었다.”⁴⁰⁾라고 기술하고 있다. 실로 의료사업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의료선교는 소민병원의 고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틈틈이 시골 지방을 순회 여행하여 농촌의 환자를 치료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퍼비언스는 1912년의 경우 농촌을 돌면서 4000건을 진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⁴¹⁾ 일제 치하의 농촌에는 고된 노동과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으로 많은 환자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계군 목사와 함께 농촌을 순회하며 선교와 의료 활동에 나섰던 퍼비언스 의사는 당시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나는 계군 씨와 함께 그의 선교구역 일부를 순회여행 하였다. 우리는 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나는 이 여행이 내 개인적인 관심이나 직업적인 관점 등 모든 면에서 유익함 많음을 느꼈다. 시골에는 문자 그대로 환자들로 꽉 차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며, 어떻게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난을 호소하고, 많은 사람이 잘 먹고, 많은 사람은 전혀 무관심한 것 같다.⁴²⁾

라고 하여 농촌에 많은 환자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고 선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1913년부터 1917년까지 의료선교에 시련을 안게 되었다. 1913년에 간호원 호우 양이 청주를 떠나고, 뒤이어 퍼비언스 의사가 또 청주를 떠나게 된 것이다. 호우 간호원이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1913년 돌연 미국으로 귀국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녀가 한 환자를 일본까지 데리고 가 치료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후 곧 귀국하였다. 거기에 더욱 소민병원을 지으면서 초창기 의료선교의 기반을 다져온 퍼비언스 부부가 돌연 미국으로 귀국하고 선교사직을 사임하였다. 병원 수련의로 있던 한국 의사가 의료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일로 시련을 겪다가 그는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고 한다. 이들 외국인 선교사와 간호원의 귀국은 청주선교부의 의료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다. 거기에 일제는 외국 선교사가 경영하는 의료사업을 견제하고 있었으니 더욱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 후 적당한 외국인 선교사도 부임하지 않고 책임질만한 한국인 의사도 물색되지 않아 의료선교는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에 1914년 12월 팀톤(P.S.Tipton 池敦) 의사 부부가 청주선교부에 배속되어 의료선교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가 없었고 선교부의 재정 지원도 열악하여

39) 『충북노회사료집』, p. 75.

40) 『충북노회사료집』 p. 75.

41)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1884~1934*, p. 315.

42) 『충북노회사료집』, p. 77.

의료사업이 부진하였다. 이때 일제 당국에서는 엄격하게 의료활동을 규제하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의료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톱톤 의사는 일본 정부가 발급한 의사 면허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두 번이나 일본 동경에 가서 면허시험에 응하였으나 낙방하는 비운을 겪었다. 한국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면허시험대비에 소홀한 탓이었다.

그 후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1916년 1월 마침내 면허 자격을 획득하여 병원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의료 사업은 처음보다 더 고무적이다. 매달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병원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온 뒤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⁴³⁾

라고 톱톤 의사는 말하고 있다.

5. 남문로에 진료소 개원

톱톤 의사가 의료선교사로 있을 당시, 1917년은 청주선교부의 의료선교사상 획을 긋는 해이다. 그것은 남문로 1가 156~1, 2번지 도심지에 ‘소민병원 진료소’가 개원되어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일신학원 자리에 위치한 소민병원은 청주선교부 바로 곁에 있어 관리하기는 편리하지만 그 병원이 가파른 언덕 위에 있어 환자들이 오르내리기에는 힘들다는 입지적 제약을 안고 있었다. 병원이 언덕 위에 있고 도심지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였기에 일찍부터 시내 가까운 곳에 병원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1916년 선교지부의 보고에도 사람 왕래가 많은 도심지에 진료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1500달러를 들여 청주제일교회 구내에 “소민병원 진료소”를 다시 신축하여 1917년 12월 개원한 것이다. 이후 양관의 소민병원은 입원실로 주로 사용되었다.

소민병원 진료소가 도심지에 세워짐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았는데, 1918년 6월 선교부의 보고에 의하면 그 해에 4천명의 환자가 이곳을 다녀갔다.⁴⁴⁾

그러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는 많았으나 반면 선교본부의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운영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겨울 난방의 연료비마저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았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선교본부는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선교부에서는 본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병원 운영보다 병원이 독자적으로 현지에서 운영비를 충당하여 병원을 운영해 나가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한

43) 『충북노회사료집』 p.83.

44) Harry A. Rhodes, Editor,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1*, p. 316.

국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운영할 때, 교인 스스로의 자립화를 추구하여 나가던 네비우스(Nevius) 선교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병원 운영도 그것을 적용하려는 발상에 기인한 것처럼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재정적 압박으로 의료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팀톤은 1918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가장 호황기에 의사가 없어 병원 문이 닫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선교본부는 청주에서 계속 활동해 주도록 팀톤에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팀톤은 서울선교부로부터 시베리아 적십자 활동을 위해 도와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레닌이 지도한 사회민주당의 다수파(볼셰비키)가 영도하는 소비에트 정부가 일어나자 연합군은 소련의 혁명에 간섭하였고 일본도 이에 참여하여 시베리아에 군대를 출병시키었다. 일본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동부시베리아를 점령하거나 친일 정권을 만들려는 속셈으로 반혁명백색정부 수립을 도우면서 그곳에 적십자 봉사대를 파견하였다. 그는 서울 선교부의 요청에 응하고 시베리아로 떠나 그곳에서 1년 동안 적십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그가 돌아오는 길에 평북 선천선교부는 몇 달 동안 임시로 미동병원에서 봉사해 달라고 그를 초빙하자,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선천선교부에 배속되었다. 선천의 미동병원 원장 샬록스(Sharrocks 謝樂秀) 선교사가 건강 악화로 병원 일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 미동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건강악화로 귀국하던 1924년까지 그곳에서 미동병원장으로서 의료선교에 종사하였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청주선교부는 외국인 간호원이라도 보내어 줄 것을 선교본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1916년 11월 내한하여 평양에서 비거(Bigger)의사 부부와 함께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간호원으로서 의료활동을 펴고 있던 라이너(Ella M. Reiner) 양이 청주선교부에 부임하였다. 그녀는 1918년에서 1919년까지 소민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그녀 역시 1919년 시베리아 적십자 활동에 동참하다가 곧 대구로 옮겨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1919~1922년 3년동안 청주선교부는 의료선교사가 없이 그대로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2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고 도심지 중심가에 벽돌로 아담한 진료소까지 개설한 소민병원은 의사가 없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1920년 4월 청주선교부는 본부에 의료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921년 청주선교부에 부임하여 활동하던 딘(Lillian Dean 千美禮)⁴⁵⁾은 그 당시의 상황과

45) 딘(청주 주재 1921~1941, 1947~1952)의 우리나라 식의 이름은 천미례(千美禮)이다. 천미례는 1916년에 내한하여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면서 줄곧 여성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 특히 3.1운동 당시는 학생들의 독립운동 모의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또한 정신여학교 안에서 비롯된 애국부인회의 발족 시 자신의 거처를 집회장소로 제공하고 주동자였던 김마리아와 함께 숙식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21년 청주 선교부에 부임하였으나 정신여학교 교사는 계속하고 있었다. 1930년 발족한 충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31년 민노아 선교사의 두 번째 부인 도티(Susan A. Doty)여사가 죽자, 천미례는 민노아 선교사와 결혼하여 민노아 선교사의 세 번째

문제점들을 다음과 지적하고 있다.

의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에서 발견된다. 의료 사업은 인근 지역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세 도의 약 백만 인구 중에서 환자들을 끌어온다. 그러나 아쉽게도 좋은 환경과 진료소를 갖춘 병원이 있고 위치도 이상적이지만 의사가 없어 지금 4년째 문을 닫고 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와서 도와달라는 이 부름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⁴⁶⁾

라고 하면서 의사가 없어 시설을 잘 갖춘 병원 건물이 오랫동안 폐쇄된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후 계속적인 요구에 1922년, 말콤슨(Oliver K. Malcolmson) 의사⁴⁷⁾ 부부와 에스텝(Kathlyn M. Esteb 芮思塔)양이 배치되어 부임하여 왔다. 그러나 말콤슨 박사 부부도 그 이듬해 평양 연합기독병원으로 전임되어 떠나게 되자 에스텝 양 혼자서 선교부의 의료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에스텝은 1915년 미국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22년부터 청주선교부로 이전하여 의료 선교 및 복음 전도에 헌신한 간호원이다. 그는 소민병원 간호원장으로서 노두의(盧斗義 DeWitt S. Lowe 청주 주재 1929~1941) 의료 선교사가 오기 전에는 한국인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선교부의 의료선교활동을 수행하였다.

소민병원 김영철 의사와 간호원장 에스텝 씨가 증평에 출장하여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왕래 불편한 환자를 장날마다 진찰, 치료해 주었다.⁴⁸⁾

소민의원 의사와 간호원장이 미원 청천에 출장하여 매월 몇 번씩 병자를 치료하고 전도하고 있다.⁴⁹⁾

라는 기록을 보면, 간호원장 에스텝은 김영철 의사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째 부인이 되었다. 이 때부터 그의 이름은 민미례(閔美禮)로 불리었다. 결혼 후에도 정신여학교 교편생활을 계속하였는데,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자 도민회과 함께 청주에서 대구로 피신하여 귀국하였다가 해방 후 다시 재 내한하여 청주에 주재하였으며 1952년 은퇴 후 귀국하였다.

46) 『충북노회사료집』 113.

47) 미북장로교 한국의료선교사로서 1921년 9월 16일 부인 엘리자베스 맥키(Elizabeth Mckee)와 함께 내한하여 세브란스 병원으로 부임하였다. 1922년 청주선교부에 부임하여 청주지방의 의료 선교활동을 하다가 평양선교부로 옮기었다. 그후 1925년 8월 26일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였다.

48) 조선예수교장로회 충청노회 제 6회 정기노회록(1927. 6. 8); 충북노회사료집 P.385.

49) 상동 p. 386. 이곳의 소민병원 의사는 김영철 의사이고 간호원장은 에스텝이라 생각된다.

택하여 증평, 미원, 청천 등 충북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환자를 치료해주고 아울러 전도지를 돌리며 기독교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철 의사는 승동교회 장로로서 조선신학교 설립에 공을 세운 金大鉉 장로⁵⁰⁾의 아들인데, 그는 세브란스의대 출신으로 소민병원에 외국인 의료 선교사가 없을 당시 에스텝과 함께 소민병원의 의료활동을 이어나간 인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부의 임시방편적인 의료선교에 불과할 뿐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에스텝은 1929년 노두의 의사가 청주에 부임한 이후부터 노두의 의사를 크게 도와 의료 선교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1939년 1년 사이에 혼자서 전도지 3만 매 배포 실적을 올릴 정도로 전도에도 헌신과 열심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1940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귀국하였는데 마침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안타깝게도 그 후 청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6. 노두의 의사의 활동

1929년에 노두의(盧斗義; DeWitt S. Lowe; 1929~1936) 의사 부부가 부임하여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청주의료사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다년간 숙제이던 소민병원에는 노두의 의사가 부임한 후 원무가 날로 증진되고 있습니다.⁵¹⁾

1932년 제8회 노회장은 광경한 목사이었다. 이 무렵 소민병원의 의술이 각 방면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노두의 의사가 수고했다.⁵²⁾

라는 기록들은 노두의 의사가 부임하여 온 이후 소민병원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노두의 의사는 미국 북장로회 한국 의료 선교사로서 1929년 9월 28일 부인(Gladys Livingstone)과 함께 내한하여 곧 바로 청주 소민병원 의사로서 활약하였다. 그는 간호원 에스텝 양의 도움을 받으며 의료 선교활동을 추진하였다. 한국인 의사들도 이곳 소민병원에서 활동하였는데, 남궁 건, 이상옥, 윤중호 의사⁵³⁾ 등이 소민병원을 거쳐간 의사들이다. 그리고 병원 약사 겸 병리사로서 金雲永⁵⁴⁾(구름운 길영)이 1941년까지 근무하

50) 김대현(金大鉉 1973~1939) 장로는 함태영, 송창근, 김재준 등과 함께 신학교육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그의 많은 재산을 회사하고 조선신학교를 경영함으로써 신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다. 그의 아들 곧 김영철 의사의 남동생 하나가 이곳 청주로 장가를 들었는데, 이것은 김영철 의사가 소민병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청주와 연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5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19회 회의록 충청노회 상황보고(보고자 회장 김정현, 1930)

52) 『충북노회사료집』 p. 200.

53) 배재학교와 세브란스 의전출신으로 대성학원 설립자 김원근 씨의 사위이다.

54) 통상 김운영으로 불리우며 잘 쓰지 않은 호적상의 성명은 金午卿이다. 선교사가 철수한

였으며 한국인 간호사로서 이성순 간호사⁵⁵⁾가 에스텝과 함께 환자를 돌보았다. 이러한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병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 몇 년간 진료환자의 수를 보면 매년 5,200명, 5,490명, 8,46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듯이,⁵⁶⁾ 소민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의료 활동은 단순한 환자 치료에 머물지 않고 계몽과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전도지와 의료 계몽지 제작하여 환자들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1936년에는 약 5,500매의 전도지가 배포되었다.⁵⁷⁾

그리고 노두의 의사나 윤중호 의사는 왕진을 다닐 때면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급히 달려갔으며 정성과 친절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로 인해 노두의 의사의 명성은 높아만 갔다.

소민병원과 그의 명성은 1937년 봄 청주를 휩쓴 홍수로 인하여 더욱 높아졌다. 주민들이 물난리를 피하여 높다란 선교부지 양관을 찾아 피난하였는데, 이 때 소민병원은 청주 주민들의 피난처로 제공되었고 또한 더불어 환자들에 대하여 무료진료가 이루어져 노두의 의사는 더욱 유명하여졌으며 시내에서 노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7. 선교사 강제추방과 소민병원의 기능 마비

일본의 군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어 만주를 병탄하고 이어 1935년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중국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일본으로서는 한반도의 황민화 정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의 황민화 정책은 우리의 말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화 하려는 정책이었다. 일본은 이의 실현을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구호처럼 부르짖으면서 종래 추진하여 오던 신사참배를 우리민족에게 더욱 강요하였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국민의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로 수행하는 종교성이 없는 행위이라고 역설하면서 이것을 통해 한국인과 일본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으려 하였다.⁵⁸⁾ 특히 1936년 8월, 南次郎이 제 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신사참배령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륙 침략 정책상 강력한 皇民同化 정책을 내세워 민족문화말살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일층 강요하였다.

뒤에 잠시 안성으로 이거해 있다가 세광학원이 설립되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는 서울 신암교회의 김상문 장로의 부친이다.

55) 그녀는 충북 기독교 초창기복음 전도에 헌신한 이찬규 조사의 딸로서 후에 상당유치원 보모로서 활동하였다.

56)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itors, *History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I, 1935~1959*, Seoul, 1965, p. 134

57) 상동.

58) 일체는 내선일체를 구호로 내걸고 한국민족과 일본민족은 조상과 뿌리가 같다는 소위 日鮮同祖論을 폈다. 그리고 창씨개명과 동방요배를 주장하여 한국과 일본의 동일성을 강조하였다.

충북지방에서는 경찰을 앞세워 기독교 계통의 학교인 청남학교를 지목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⁵⁹⁾ 이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학교를 굴복시키기 위한 음모였다. 여기에는 교회지도자들과 선교사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기독교 학교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 식민지 교육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도 함께 들어 있었다.

충북의 기독교는 신사참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청주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한부선 목사 같은 이는 선교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한 인물인데, 그에게 신앙지도를 받았던 충북지방의 많은 교역자와 평신도들은 신사참배 반대 의식이 강하였다.⁶⁰⁾ 또한 청주선교부의 선교사로서 청남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소열도 목사는 이미 1935년 북장로회 선교회 실행위원으로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를 선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면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남학교나 이 지역 기독교는 신사참배에 대하여 강경히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⁶¹⁾

그렇기에 기독교 학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남학교는 이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면서 신앙과 민족의식을 고수하여 나갔다. 1935~36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동원되었을 때, 청남학교 학생과 교사는 뒷전에서 관망만 하고 있을 뿐 제관이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사이케이레이(最敬禮)”라는 경례구령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45도 각도로 경례를 하였지만 청남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꼴꼴이 서 있거나 또는 그 구령에 맞추어 뒤로 돌아서곤 하였다 한다. 이것은 우상숭배 거절이라는 기독교 정신에 따른 행동이기도 하나 또한 조선민족으로서 일본의 천황에게 절할 수 없다는 민족적 긍지와 독립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⁶²⁾

이러한 일로 인하여 청남학교는 당국으로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충북도 당국은 학교에 신사참배 수락을 강요하였다. 1936년 민족의식이 강하게 길들여진 청남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신사참배에 불응하고 나섰다. 신사참배 반대로 당시 교사 정규태 정순경 선생은 구속당하였으며 학교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던 당시 재학생 박종렬, 홍정흠, 강병찬 등도 감금을 당하였다.⁶³⁾ 이일로 청남학교 교장 소열도 목사, 교사 정규태와 정순경 등은 신사참배에 불복하여 강제 퇴직 당하였고, 학교도 10월 12일 마침내 강제로 휴교처분을 당하였다.⁶⁴⁾

59) 전국 각 지방의 신사건립의 계획에 의거하여 청주에는 1922년 동공원(대성동)에 청주신사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청주에 있는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차차 관공서는 물론 공립 학교 교사와 학생들까지 신사 참배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다. 충청북도 편찬, 『昭和五年 忠清北道要覽』(1930) pp. 86~87에 의하면 1930년에 충북에는 15개의 神社가 있었다.

60) 『충북노회 80년사』 p.119.

61) 전순동·최동준, 전계논문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p. 119.

62) 상동.

63) 이쾌재, 「충청지역 교회의 발자취」 『충북노회사료집』 1998. pp. 439~440. 전순동·최동준 전계 논문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p.120.

64) 전순동·최동준,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 2·3합집 pp.117~121. 폐교당한 청남학교는 그 후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서 결국 당국에 순응하기로 하고 8일 후인 10월 20일에 다시 개교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선교사들이 학교를 떠나 주인 없는 학교가 되자, 동년 12월 4일 과거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던 최동선

학생을 강압적으로 신사 앞에 굴복시킨 일제는 교회 쪽으로 방향을 옮기었다. 먼저 작은 교단부터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일제의 강압으로 각 교단차원에서 결의되기는 하였어도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개별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끊이지 않고 거세게 일어났다. 많은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 수난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하였다.

선교사들도 신사참배에 대하여 출신교파, 신학적 성향 등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방위량, 나부열, 소열도, 허대전, 노해리, 한부선 등은 신사참배를 강경하게 거부하였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초지를 굽히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역자들과 교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제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고 말았다.

청주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열도 선교사가 1937년 신사참배 반대로 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 그러나 노두의 의사는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선교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41년 2월 일경에 의해 체포 구금되었다. 이유는 가미다나 위폐 제거사건이었다. 당시 일제는 가미다나 위폐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는데, 노두의 의사는 청주선교부에 속한 가정집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부 회수하였다. 이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교인 중 한 사람이 장기현 고등계 형사와 의논하자 그 형사는 그것을 사실대로 당국에 보고하고 말았다. 이 일로 신단제거의 장본인인 노두의 의사는 체포되어 대전 감옥소에 처음 수감되었다가 후에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그는 2년 언도의 형을 받았으나 외국 선교부가 그를 귀국시킨다는 조건으로 구금된 지 5개월만인 그 해 7월에 풀려났다가 다음달 8월에 미국으로 귀국하였다.⁶⁵⁾

이후 소민병원은 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권고로 1941년 4월 8일부터 의료사업이 6개월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 그 후 다시 여건이 갖추어지면 개원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선교사 강제 추방과 태평양전쟁 휩싸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문을 닫고 말았다.

이 인수하여 학교를 경영하였다. 학교의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았다. 마침내 이 학교는 1938년 4월 1일 청주제일교회를 떠나 상당구 영운동 127번지 오늘의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운영이 어려움을 당하자 1942년 7월 1일 독지가 김용태가 토지 약 2만여 평을 희사하고 인수하였으며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때에 일제는 강한 민족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말썽 많은 사립학교를 합병하여 공립학교로 만드는 시책을 취하고 대성학교와 청남학교를 합병하여 성남국민학교(成南國民學校)로 개명하여 공립학교로 삼았다. 교장도 일본인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교장으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가 임명되었으며, 교장인 김용태는 부교장이 되었다. 그러나 1945년 8.15 해방을 맞은 후, 9월 24일에 ‘청남’이라는 옛 이름을 다시 되찾아 청남국민학교(교장 박정식)로 환원되었으며 그것이 오늘의 청남초등학교에 이르게 되었다.

65) Henry Munro Bruen, *40Years in Korea*,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영인, 1998) p. 565. 당시 청주선교부에서 선교사의 일을 도와 주었던 김창구 옹의 증언(2001. 10. 11.) 그는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에서 전도부인으로 활동하던 그의 할머니(남유수)를 따라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으며 부레선 선교사로부터 공과 그림책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선교사와 인연이 되어 청주 선교부의 일을 돌보게 되었다.

해방 후 소민병원은 의료선교사가 복귀하지 않아 이전처럼 부활되지 못하고 폐쇄되어 문을 닫고 말았다. 그 때에 한재호 의사가 3년 기한으로 이 건물을 임대하여 개업하였으나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여 제대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건물은 1949년 세광중학교가 개교된 이후 중학교의 교무실로 사용되었으며 1953년에는 세브란스 의전 출신의 김의문 장로가 임대하여 모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 청주분원’이라 간판을 걸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1955년 충북노회가 예장과 기장으로 나뉘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교부의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유지재단에 귀속되었는데, 남문로 156번지 소민병원 진료소에 속한 118.5평의 땅도 예장 충북노회가 관할하게 되었다. 노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던 맹학교 광화원에서는 1978년 이 땅을 충북노회(통합)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광화원에서는 그 이듬해 곧 1979년, 증여 받은 그 땅에 옛 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17평의 건물을 지어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광화원의 수익재단으로 삼아 오고 있다.

노두의 의사 부부는 한국을 떠난 지 36년만인 1979년에 80세의 고령의 나이로 청주를 다시 방문하였다. 오늘날 일신학원에 자리했던 양관 선교부 구내를 돌아보면서 옛 추억을 더듬었는데, 노두의 선교사 부부는 현재 일신여고 교목실로 사용하는 건물에 이르자 그곳에서 첫 아들은 낳았다고 하면서 감격해 하였다고 한다.

노두의 선교사는 1929년에 사용하던 명함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당시 일신여고 교감으로 있던 안재명 장로에서 기념으로 그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淸州蘇民醫院長 醫師 盧斗義” 라고 한자가 적혀 있고 그 옆에 일어가 병기되어 있으며, 이 면에는 영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명함의 주소란에는 ‘朝鮮忠淸北道淸州邑金町195번지’로 되어 있다.⁶⁶⁾

현재 일신여고 교목실로 사용하는 건물을 “노두의 기념관”으로 부르는 것도 바로 청주지역에서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12년간 머물면서 충북인의 건강을 위해 희생 봉사하였던 노두의 선교사의 공적을 기리고자 함에서 인 것이다.

8. 결론

청주 선교부의 의료선교는 널 의사가 부임한 1907년에 시작하여 노두의 의사가 강제 출국된 1941년까지 약 35년간 실시되었다.

청주선교부의 의료선교는 크게 3단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창기 진료소 시기(1907~1912), 소민병원 시기(1912~1917), 도심지 남문로에 소민병원 진료소 개설 시기(1917~1941)로 구분할 수 있다. 초창기 진료소의 시기는 널 퍼비언스 등이 활동하던 시기로 이 때는 주택에 약국과 진료소를 두고 의료활동의 기초가 세워진 시기이다. 소민병원 시기는 퍼비언스, 톱톤 등이 활동하던 시기로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병원시절이다. 남문로 소민병원 진료소 시기는 종전의 병원이 탑동 양관에 위치하여 환자가 병원을 찾아간 시기라 한다면, 이 시기는 병원이 시민을 찾아

66) 안재명, 전게서 『충청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 pp.100~101

은 시기로 시민들이 편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던 시기로 의료활동이 그만큼 확대된 시기이다. 이 때에는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었던 어려운 시기임에도 노두의 의사 및 간호원장 에스텝, 그리고 한국인 의사 김영철·남궁 건·이상옥·윤중호, 간호원 이성순 및 여러 보조자들의 도움으로 의료활동이 지역사회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다만 청주선교부의 의료기관으로 출발한 소민병원이 1941년 선교사들의 강제 철수와 함께 병원 문을 닫고 해방 후에도 다시 부활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그간 지나치게 병원의 자립운명을 목표로 한 선교부의 재정지원의 미약, 의사 및 간호원들의 대도시 근무 선호로 인한 정착성 희박, 병원을 운영할만한 인물이나 영향력을 발휘할만한 지역적 배경 결여, 일제 통치의 보이지 않는 방해 등이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일제시기 소민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선교가 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청주선교부 의료선교가 교회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청주선교부를 통한 의료선교는 충북 최초의 의료활동이었다.

② 의료 선교는 외국인과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주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기독교 복음에 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전통적 양반사회의 기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충청도의 사람들에게 서양의 근대의식을 심어주고 유교적 가치관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③ 충북의 많은 사람들이 소민병원을 통하여 의료혜택을 크게 받았다.

④ 의료 행위는 고정된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나 간호원들이 매월 몇 차례씩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태도가 농촌에 많이 보급되었다. 의사나 간호원은 각계 각층의 사람, 남녀 노소를 두루 접하면서 몽매한 농촌 사람들에게 보건위생의 관념을 진작시키고 더불어 농민들의 편견·악습·미신·불합리한 생활습관 등을 제거하는 등 근대 의식을 고양시켜 나갔다.

⑤ 병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교 기관이었다. 의료 활동은 선교의 방편이었기에 병원은 그 자체로서 전도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충북 기독교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⑥ 소민병원은 지방 의학계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의사들이 소민병원에서 수련과 경험을 쌓아 장차 독자적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극을 받아 충북의 엘리트들이 서울 세브란스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고 그들이 충북지방에서 개업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그리고 여간호원들의 활동으로 여성의 근대의식이 고취되었다. 소민병원에서의 여러 간호원들이 수련활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없던 시절에 개화 사상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여권신장에도 기여한 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본 연구가 주로 선교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는데, 소민병원에는 의료 선교사와 함께 활동한 김영철, 이상옥, 윤중호 등 한국인 의사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과연 구체적으로 소민병원에서 어떤 의사, 간호원, 그리고 보조자들이 근무하였는가를 밝힘으로서 청주의 의료 선교 활동을 보다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밀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 의료선교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공회에서 세운 진천의 애인병원, 구세군에서 세운 영동의 구세병원 등의 실상도 밝혀져야 할 일이다.

본 논문이 그동안 소홀하였던 의료선교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영동과 진천과 청주 각 지역의 의료선교의 내용을 밝혀 기독교와 의료행위와의 관계,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관련 등이 바로 이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